

哲人 스피노사 그의 生涯와 哲學(四)

-誕生 三百年 記念을 마지며-

金斗憲

스피노사는 이러한 因果的 必然論으로써 物體界는 勿論 心理及 國家現象을 說明하고 一切의 目的 觀을 排斥하였다. 또한 意志의 自由도 否定하였다. 또한 善惡의 觀念도 否定하였다. 그리하여 自由와 善惡에 關한 獨特한 解釋을 하였다.

그에 依하면 모든 事物은 될 수 있는대로 自己의 存在를 保存하려고 努力한다고 한다. 따라서 自己保持의 努力은 卽 事物의 本質이다. 이 根本的 努力은 欲求(Cupiditos)로 具現한다. 卽 사람의 自然히 欲求한바는 自己를 保存하고 增進하여 自己本質의 完全한 域에 向上하는 것이다. 이 欲求에 滿足을 주는 것을 善이라하고 그를 障礙한것을 惡이라한다. 決코 物 그 自身 이 本質的으로 善이고 惡인것은 아니다. 이 欲求가 充滿될때의 意識 卽 마음이 一層더큰 完全에 옮겨갈 때의 情을 喜 또는 快라 하고, 이에 反對한것을 悲 또는 不快라 한다. 그리하여 欲求喜悲의 三을 根本的 情緒로하고 여기서 모든 情緒를 導出하였다.

스피노사는 이러한 自己 保存說에 道德論의 基礎를 두었다. 사람은 元來自己活動의 增進을 努力한것이니, 이 努力을 充足케함은 곧 德이다. 그러므로 德은 곧 힘(力)이라 한다. 그런대 人心의 本質은 思惟에 잇스니 德은 곧 이 思惟의 힘을 完全히 活動케한대 잇을 것이다. 이에 스피노사는 感情의 統制와 理性의 發揮를 思索과 實踐의 中心問題로 삼게 되었다.

事物의 充分適切한 觀念을 어듬은 그 事物을 完全히 認識함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事物을 眞正히 認識함은 그것을 實體의 本質의 必然的 因果關係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感官의 知覺과 마음의 모든 煩惱는 모다 不完全한 觀念에 屬한것이다.

우리의 心情을 擾亂케하는 情念 卽 嫉妬, 嫌惡, 恐怖, 落膽等等은 各個人을 中心삼고 事物을 보며 그 必然的 關係를 알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러

한 煩惱에 拘束되어 잇을 동안은 自己活動을 充分히 伸長할수업는 狀態 卽 奴隸的 狀態에 잇다 할 것이다. 사람의 眞正한 自由는 理性的 完全한 活動의 狀態에 나아가는데 잇다. 다시 말하면 煩惱의 同伴을 解脫함은 오즉 眞正한 認識으룻만 된 것이다.

이와 가티 해야 스피노사의 世界觀人生觀은 必然的 決定論으로 徹頭徹尾하였다. 그러나 이 必然的 機械論은 드되여 完全한 成功을 이루지 못하였다. 웨그러냐 하면 그는 價値觀 目的觀을 全然 度外視할 수 업섯는 까닭이다. 이것 무슨 말인가?

스피노사는 人生의 모든 不安과 苦惱은 有限物에 對한 愛에서 생긴다 한다. 그것은 事實이다. 우리는 富를 地位를 名譽를 權勢를 愛하나, 그것이 消滅될새는 不安과 苦惱을 甯긴다.

그러나 스피노사에 依하면 萬物을 그 永遠한 必然的 因果關係로 볼 새 거 기면 아무不安도 悲哀도 업다 한다. 마치 幾何的 點線圖을 볼 새와 가티 卽 그 永遠한 必然的 關係로 認識할새 그것은 精神의 가장 完全한 活動힘으로 喜를 甯긴다. 그리고 이 喜는 萬物을 神에 關係하여 認識함으로 곳 神에 對한 愛가 된다. 神의 認識은 卽 神의 愛다. 이에 「神에 對한 知的 愛는 完全한 德이요. 福이다.

여기에 스피노사는 愛의 對象에 關한 價値的 見解가 分明하다. 卽 그의 必然的 機械觀의 背面에는 理想的 價値의 見解를 全然히 脫離할수업섯는것이다.

그러나 低然 스피노사의 哲學은 不朽의 功□을 남기였다. 猶太의 背敎者, 不遇孤獨의 大哲學者스피노사는 그의 哲學精神 또 그것을 體現한 그의 人格은 三百年지난 오늘까지 光輝燦然하니, 삼가 그의 誕生을 記念할지어다.(終)